포르투갈 국방부 장관, 육군용 헬리콥터 구매 발표

'24. 11월. 22일(금요일), 리스본무역관

□ 주요 내용

○ 2024년 10월 27일, 포르투갈 국방부 장관 누누 멜루(Nuno Melo)는 육군의 날 기념식에서 포르투갈 육군용 헬리콥터 구매 계획을 발표함

○ 이 계획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되는 군사편성법(Military Programming Law, LPM)에 의해 추진되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, LPM은 포르투갈 군대의 현대화 및 유지를 위한 공공투자 편성을 목적으로 함

□ 네 대의 헬리콥터 구매에 약 4,080만 유로가 투입되며, 2026년에 도입될 예정

○ 이번 헬리콥터 구매는 포르투갈 육군이 공군의 항공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공중 기동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진전을 의미하며, LPM의 전체 예산은 총 55억 7천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음

○ 누누 멜루 장관이 주도한 이번 결정은 육군이 독립적으로 다목적 헬리콥터 네 대를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, 구매 비용은 약 4,080만 유로에 달함

○ 장관은 이번 투자에 헬리콥터 구매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, 교육 및 배치 장소에 대한 추가 투자도 포함된다고 언급함

○ 해당 헬리콥터는 군수 지원, 수색 구조 활동, 재해 대응에 사용될 예정

으로, 이는 포르투갈 국방 우선순위와 NATO 및 EU의 방위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

[자료: JN - Leonardo Negrao]

o 이번 이니셔티브는 국방부가 강조한 전략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, 포르투갈 국방 전략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지역 불안에 대응하며 현대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

- 육군 참모부에 따르면 헬리콥터는 탄코스(Tancos) 군사 기지에 배치될 계획이며, 첫 번째 헬리콥터는 2026년에 도입될 예정임

o 누누 멜루 장관은 헬리콥터 구매가 포르투갈의 국방 역량 강화 목표에 부합하며, 국내 비상 상황, 인도적 위기, NATO 의무에 따른 해외 작전에서 육군의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

- 이번 조치는 독립적인 다목적 공중 작전 수행을 목표로 한 육군의 체제 개편을 의미함

o 또한, 육군 참모총장 에두아르두 멘데스 페랑(Eduardo Mendes Ferrao)은 헬리콥터가 “유럽 작전 지역은 물론 중앙아프리카공화국(CAR) 작전에서 지상 병력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것” 이라고 언급함

[자료: 포르투갈 국방부]

○ 군사 작전과 민간 구호를 겸하는 다목적 헬리콥터는 LPM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성과로 여겨지며, 정책과 군사 인프라 개선을 연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

○ 헬리콥터는 병사 약 1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, 육군 비상 군사 지원 체계에 통합되어 민간 지원 업무를 위해 국가 비상 민간보호청(National Emergency and Civil Protection Authority)과 협력하여 운용될 예정임

□ 자료원

○ Ministry of Defense

- https://www.defesa.gov.pt/pt/comunicacao/noticias/Paginas/Nuno-Melo-anuncia-aquisicao-de-helicopteros-para-o-Exercito.aspx

○ Jornal de Noticias

- https://www.jn.pt/3010428100/assinado-despacho-para-permitir-compra-de-helicopteros-pelo-exercito/

- Observador
  - https://observador.pt/2024/10/27/assinado-despacho-para-permitir-compra-de-helicopteros-pelo-exercito/